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범어사 동의가 '분기점'

10월 31일, 국립공원위 심의 통과
24번째이자 첫 도심형 국립공원
범어사, 상생발전 MOU 체결
정오 스님 "300만 시민과 축하"
10월 30일, 개산대재로 '법등 밝혀'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범어사가 자리한 금정산이 우리나라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범어사 전경.

부산 금정산이 10월 31일 24번째 국립공원이자 첫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가운데, 수년에 걸친 금정총림 범어사의 협력이 분기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20년 숙원이던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300만 부산 시민과 함께 축하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립공원위원회는 10월 31일 제144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결정안'을 의결했다. 37년 만의 신규 지정인 데다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지난해 범어사가 국립공원 지정에 '공식 동의' 입장을 확정하며 이해 당사자 협의를 제도화한 점은 지정 추진에 분기점이 됐다는 평가다.

금정산은 자연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이다. 그중에서도 범어사와 금정산성은 금정산의 정체성과 상징하는 핵심 자원으로 손꼽힌다. 이번 지정을 통해 금정산은 일상의 산을 넘어, 국가가 인정한 보전 가치 공간으로 위상이 분명해졌다.

부산시는 수년 전부터 지정 타당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사유지와 사찰 토지 문제, 수행 환경 보전, 탐방로 관리 등이 민감한 과제로 다뤄졌다.

하지만 범어사는 대승적 결단으로 지난해 11월 26일 부산시·금정구 등과 '금정산과 범어사의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립공원 지정 동의를 공식화했다. 협약에는 산불 예방, 탐방로 정비, 수행 환경 보전 등 공동 관리 원칙이 포함됐다. 이 협약을 통해 범어사는 지정 과정에서 '협의 대상'을 넘어 '지정 이후 운영 국면까지 함께 책임지는 협력 당사자'로 참여 지위를 명확히 했다.


금정총림 범어사는 10월 30일 개산 1347주년 기념 개산대재를 봉행했다.

문화와 역사 자원은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평가 항목 중 하나다. 범어사의 문화유산과 역사성은 금정산이 단순 자연자원이 아니라 '도심형 역사자원 복합 산지'라는 성격을 입증하는 근거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주지 정오 스님은 11월 4일 "20년 숙원이던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300만 시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지정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범어사는 앞으로도 시민이 자연과 문화를 함께 체감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취지에 부합하는 보전과 운영에 책임 있게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범어사는 10월 30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개산 1347주년 기념 개산대재'를 봉행했다. 법석에는 방장 여산 정여 대종사와 수좌 수불 대종사, 주지 정오 스님, 강주 용학 스님 등 본말사 스님들을 비롯해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성희엽 부산미래혁신부시장, 이대석 부산시의회 부의장, 김석준 부산교육감, 윤일현 금정구청장, 하정선 불교TV염불공양회장 등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정여 스님은 법어에서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보이는 세계도 청정하고, 마음이 어둡고 답답하면 세상도 어둡고 혼탁하게 보인다"고 설했다. 또 "의상 대사께서 산문을 여신 것은 모든 중생의 고통과 번뇌를 맑고 청정한 부처님 마음으로 바꾸어 주기 위함"이라며 "화엄의 가르침은 혼탁한 마음을 가을 하늘처럼 맑고 따뜻하게 해 가정과 사회, 국가가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이끄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오 스님은 봉행사에서 "1300여 년 동안 범어사는 한반도의 역사와 함께 불법의 등불을 밝혀 왔고, 수많은 중생의 마음에 의지처가 돼 그 가람은 더욱 찬연히 빛나고 있다"고 말했다.

제15회 반야학술대상에 조병활 원장

11월 2일, 통도사 반야암서 시상식
〈조론〉 주석서 5종 번역 성과 주목



제15회 반야학술대상이 '조론'과 '바세' 연구에서 학술적 기여도를 인정받은 조병활 불전연구원장에게 주어졌다.

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 스님)은 11월 2일 제15회 반야학술대상 시상식을 통도사 반야암 설법전에서 개최했다.〈사진〉

연구원장 지안 스님은 "반야학술대상은 연구 업적만을 표창하는 행사가 아니라, 불교가 지닌 지혜를 오늘 사회 속에서 어떻게 기능하게 할 것인가를 묻는 학문적 실천의 장"이라며 "이번 시상식이 한국 불교학계가 동아시아 비교 연구의 흐름을 더 넓게 전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태 반야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은 올해부터 명칭을 '반야학술대상'으로 변경한 배경을 설명하며, 시상이 학문 발전을 촉진하는 제도로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병활 박사는 "과분한 평가를 앞으로 더 연구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겠다"며 "중국불교와 티베트불교란 전공 분야가 한국불교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하도록 연구 성과를 더욱 축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옥천암, 12차 산신대재 및 경로잔치

11월 1일, 지역사회 평안 기원
이웃돕기 라면 300박스 전달



부산 옥천암(주지 대각 스님)은 11월 1일 '제12차 황령산 옥천암 산신대재 및 경로잔치'를 봉행했다.〈사진〉

도량의 안녕과 지역사회의 평화를 기원하고 어르신 공경과 이웃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된 이날 법회에는 대한불교화엄승가회 수석부회장 천웅 스님, 총무부장 성담 스님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주지 대각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일상 속에서 실천되고 지역과 함께하는 포교 도량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옥천암 신도회는 라면 300박스를 문현2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하며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도일 스님, 5명에 법맥 전등

11월 2일, 전계 및 전강 법회 봉행
승조 · 지성 · 담산 · 용희 · 일몽 스님


전 송광사 율원장 도일 스님이 11월 2일 부산 관음사에서 제자 5명에게 강맥과 율맥을 전했다.

전 송광사 율원장 도일 스님이 부산 관음사에서 5명의 제자에게 강맥과 율맥을 전했다.

조계총림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회주 지현 스님)는 11월 2일 수광보전에서 '대회 도일 율사 대강백 전계 및 전강 법회'를 열었다.

이날 전계·전강을 받은 제자는 금정 승조 스님(진도 쌍계사 주지), 청수 지성 스님(청주 청수사 주지), 선해 담산 스님(총무원 총무국장), 구암 용희 스님(서울 길상사 교무국장), 대각 일몽 스님(송광사 수행) 등 5명이다.

도일 스님은 제자들에게 전계첩과 전강첩을 비롯해 '5부 율장'과 '초기 4부 경전'을 전했다. 이날 전등 여의(如意)는 차기정 장인이 제작한 작품으로, 법맥 계승의 상징성을 더했다.

도일 스님은 "계율의 뿌리는 자비를 잊지 않는 데 있다"며 "율사로 살아가는 첫걸음을 청정 수행으로 삼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길을 걸어가라"고 강조했다.

송광사 율원장 대경 스님은 축사에서 "도일 율사 대강백 스님은 평생 율맥 전승에 헌신해 온 한국 율학의 중심 인물"이라며 "이번 전계 전강은 한 사제의 법맥을 넘어 한국불교 율학의 계보 계승을 확인하는 역사적 법석"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관음사 회주 지현 스님은 "불조의 혜명은 수행자의 청정한 계행에서 발현된다"며 "오늘의 법석이 한국불교 율학 전통을 다시 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제자 대표로 입지발원문을 낭독한 청수 지성 스님은 "부처님의 바른 법이 세상에서 다시 꽃피도록 생명을 바쳐 정진하겠다"고 발원했다.

도일 스님은 원조 각성 대강백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범일 보성 대율사에게서 전계를 받았으며 영축총림 전계사 혜남 스님에게 자장율맥을 이어받았다. 송광사 율원장을 지낸 뒤 부산 관음사에 주석하며 후학 지도에 전념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학생들 시선으로 그린 범어사

'화폭에 담은 범어사' 전시
11월 16일까지 성보박물관


정은희 학생의 작품 '범어사 아름다운 길'.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정오 스님, 범어사 주지)은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부산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대관전 '화폭에 담은 범어사'를 개최한다. 지난해 범어사와 부산예술고가 체결한 지역문화유산 보존과 예술교육 활성화 협약에 따라, 매년 5월 학생들이 범어사를 찾아 스케치한 작품 중 우수작을 선별해 선보이는 자리다.

올해는 39점이 선정됐다. 범어사는 작품 일부를 달력으로 제작, 부산예술고에 제공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世界가 인정한 聖鐘社 명품 범종이 또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남해 부소암종
(중량 600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로 전세계 20여개국으로 수출되며, 범종계의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성종사 범종이
세계 최초로 입체조각기법을 범종에 도입하여, 한국 범종 수준을 또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현재 화천군민의 종(2000관) / 중국 남보타사종(1000관)을 본 기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입체감, 생동감, 화려함, 정교함을 자랑하는 성종사의 명품 범종

범종명가 성종사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읍 습지길 35 ◆ Tel : 043-536-2581 ◆ Fax : 043-536-2582
◆ 홈피 : www.sungjongsa.co.kr ◆ e-mail : won6141@hanmail.net ◆ 대표 : 범산 원광식